

평창겨울올림픽 대비 5439억 확보 총력

강원도가 평창겨울올림픽 예산 중 6000억원에 가까운 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까지 경기장·진입도로 등 올림픽 직접시설 30개 사업에 1조4137억원, 문화도민운

동 등 콘텐츠 41개 사업 2조3628억원 등 총 3조776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도비부담은 5439억원이다. 국비는 1조7097억원, 시군비 2814억원, 민간자본 1조1605억원이 투입된다.

겨울올림픽 사업은 지난해까지 5812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7398억원이 반영됐다. 이어 2016년 1조3289억원, 2017년 93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194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1141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1158억

원을 늘려 시설공사와 진입로 공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2016년 2094억원, 2017년 752억원, 2018년 29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도는 연간 가용 재원이 20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발행되는 지방채 980억원 중 겨울올림픽에는 78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내년에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안은복 rio@kado.net

도내 재건축·재개발 시장 '꿈틀'

레고랜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힘입어 중견 건설사들 도전장

건설경기 침체로 담보상태에 놓여 있던 강원도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각종 개발사업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원주 혁신도시 이전 및 기업도시 조성사업, 강릉-원주 철도 등 SOC확충사업이 개발 효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춘천시 후평동 중공 2단지 아파트는 시공사로 일성건설을 선정했으며 최근 조합원 500여명에게 이주공고를 냈다.

조합 측은 오는 8월쯤 새 아파트를 착공, 2018년 1월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약사3구역은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최종 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설립 후 3년여 만에 약사지구 9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재개발에 나선다.

올해 6월까지 관리처분 절차를 밟고 이주,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까지 아파트 신축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약사3구역은 춘천경찰서 뒤편 약사천 하류 일원 4만4000여㎡에 걸쳐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 호재가 맞물린 원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단계 4동 및 원동 나래·남산 재개발지구는 관리처분 인가 준비 및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 중이다.

특히 단구동 14동지구는 지난해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안) 등 향후 추진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속초시 중앙동 497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해 강원도로 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간의 부진을 딛고 지난해 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일원의 주거환경 불량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에서 예상되는 수주 및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들도 참여, 도내 빅3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道 건설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공공공사 수주액 1조4000억... 150개사 '0'

강원지역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이 2년 연속 1조 4000억여원을 돌파했지만 수주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총 1조4286억2962만원(2024건)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3년(1조4666억3459만원)보다 2.6%(380억 497만원) 감소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전체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1조4000억원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지난 해 아이스하키경기장 I·II, 피겨·쇼트경기장 등의 겨울올림픽 관련 경기장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모 중견건설사의 경우 공사 3곳에 참여해 400억원 이상의 수주고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림픽 시설공사 대부분은 대형사들의 몫이었고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던 진입도로 건설공사 일부도 올해로 이월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주난은 여전했다.

실제 지난해 공공공사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대형 SOC사업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사금액이 감소

된데다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놓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유찰이 거듭되면서 수주기회가 줄었다.

여기에 외지업체까지 들어오면서 도내 594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개사는 단 1건의 공사도 따내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공사들이 예정대로 발주됐다면 가장 많은 공공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2010년 1조5400억원과 비슷한 실적을 달성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대형건설사 일부에만 수혜가 돌아가면서 건설업체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조달청, 이번주 23건 2200억 입찰 집행

강원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 16일 개찰

LH, 5건 대기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1.12~1.16) 강원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모두 23건, 추정 가격 기준 2200억원 상당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 등 대형공사 물량이 주춤함에 따라 지난주(계획) 대비 입찰건수는 7건 늘었지만, 집행규모는 160억원가량 줄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개찰예정이었던 364억원 규모의 강원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사업(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오는 16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 외에 10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공사 입찰도 10건이 예정돼 있다.

우선 13일에는 209억원 규모의 세종시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를 비롯, 노성천 노성지구 등 3

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186억원)과 마산종합스포츠클럽센터 건립공사(139억원) 입찰이 집행된다.

이어 14일에는 165억원 규모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청사 신축공사(건축) 개찰이 이뤄지고 15일에는 205억원 규모의 노량항 건설공사 입찰이 실시된다.

16일에도 126억원 규모의 대구 세천초등학교 신축공사(가칭)와 더불어 대구비슬초등학교 신축공사와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군민체육관 건립공사(건축, 토목), 포산중학교 이전(신축)공사 입찰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총 282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5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1047억원, 10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5건, 금액은 765억원 감소한 것으로, 연초 수요부서의 발주 의뢰 감소로 입찰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봉승권기자·채희찬기자

skbong@